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회의

#### ‘성인지 감수성 On하다’ 주제 자문회의 진행

#### 성학대 피해아동 사례·자원 연계 방안 논의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군산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홈케어플래너 8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On하다’라는 주제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소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성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자원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자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성학대 피해아동 가정 사례 개입 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개입방안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한 대안을 마련해 사례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배분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케어플래너 및 임상 전문인

력을 통해 찾아가는 사례관리, 전문 상담 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서비스를 진행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학대피해가정의 좋은 변화를 도모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홈케어플래너가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올바른 대응체계를 확립해 성학대 사례가정에 효과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경 홈케어플래너는 “아동들의 연령별 성교육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치료 상담 중 성 관련 내용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료,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김미희기자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군산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홈케어플래너 8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On하다’라는 주제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자문회의에 참여한 홈케어플래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김혜영 군산 성폭력 상담소 소장의 모습. (사진제공=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목포 용해동 지사협, 취약계층 치과 치료 지원

**치료 절실한 대상자 80만원 상당의 의료비 지원**

목포시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민화)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치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이○○(여, 40대)에게 8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에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복지기동대사업에서도 함께 손을 거들었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5년

전 씹은 보철이 파손되어 간단한 음식조차 씹지 못 하는 상태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음식 섭취가 어려워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양민화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치과 진료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식생활이 곤란

한 우리 이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용해동장은 “지역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써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곡성군, 거리두기에 따라 맞춤형 건강팔팔마을만들기

**총 143개 마을 참여해 신체활동프로그램·보건교육**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요가수업에 참여한 주민 A씨는 “집에서 움직일 일이 많이 없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따라하다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라며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매년 신규 건강팔팔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11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혈압, 혈당 등 8개 항목을 검사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곡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비대면 신체활동, 건강팔팔마을 확대 등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과일바구니 사업실시

영암군은 최근 코로나19 인체 중단되었던 ‘과일바구니사업’을 9일부터 27일까지 지역아동센터 17개소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 과일바구니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으로 신선한 과일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교육으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에게 제철과일 제공뿐만 아니라 간식을 안전하게 먹는 법, 아침밥의 중요성, 영양소 이야기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편식 및 비만 예방관리와 건

강한 식습관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건강팔팔마을 사업을 맞춤형으로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기간을 뺀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대표적 장수지역인 곡성군은 주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08년부터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곡성군 건강팔팔마을은 매년 읍면장 추천을 받아 11개 읍면마다 각 1개 마을을 선정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개 마을(18,598명/65세 이상 6,55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건강팔팔마을 주민들은 요가, 걷기, 건강 체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금연·영양 등 보건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마을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